

제1 교시

국어 영역

[1~3] 다음은 학생의 발표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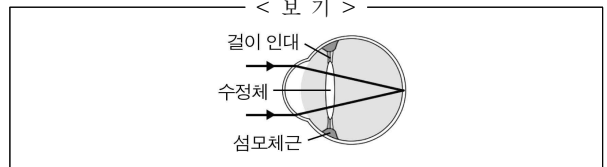
저는 요즘 휴대폰 사용 시간이 늘어나면서 사물이 또렷이 보이지 않고 눈에 피로를 느끼는 일이 잦아졌는데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증상을 경험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역시 그러시네요. 실제 휴대폰 사용으로 인해 안구 질환 환자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휴대폰 사용과 눈 건강에 대해 발표하고자 합니다.

본래 우리 눈은 자동 초점 기능이 있어서 보고자 하는 대상과의 거리가 바뀔 때 초점을 순식간에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오랜 시간 동안 보는 습관을 갖게 되면 조절 긴장증이 생겨 눈의 자동 초점 기능이 저하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일까요? 지난 시간에 선생님께서 수정체에 대해 설명해 주셨죠? (㉠ 자료 제시) 여기 수정체를 둘러싸고 있는 이 근육의 이름도 기억하시나요? (대답을 듣고) 네, 맞습니다. 바로 섬모체근입니다. 그리고 수정체와 섬모체근을 잇는 이것은 걸이 인대라고 합니다. 다음 화면을 함께 보시죠.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먼 곳을 볼 때에는 섬모체근이 늘어나 걸이 인대가 팽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걸이 인대가 잡아당기고 있는 수정체가 납작해져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운 곳을 볼 때에는 그 반대가 되고요. 휴대폰을 오래 보게 되면 걸이 인대가 이완된 상태가 지속되어 나중에는 자동 초점 기능이 저하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눈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휴대폰을 오랫동안 보게 되는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걸이 인대를 유연하게 하는 눈 초점 운동을 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시죠. 먼저 30cm 이내의 근거리를 10초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5m 이상의 원거리를 10초 동안 바라봅니다. 이것을 번갈아 1분 이상 해 주면 됩니다. 어떠신가요? 눈이 좀 시원해지셨나요?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그러면 눈 초점 운동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 자료 제시) 보시는 것처럼 눈 초점 운동을 하루에 10회 이상 지속적으로 한 사람은 눈의 자동 초점 기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제 발표가 여러분의 눈 건강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 눈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휴대폰 보는 시간을 줄여 눈을 쉬게 해야 한다는 점은 잘 아시죠? 시력은 한 번 저하되면 눈 초점 운동을 한다고 해도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한 내용은 대한안과학회에서 발간한 학술지와 대한시과학회의 누리집에 게재된 자료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2. <보기>는 위 발표에서 발표자가 제시한 자료이다. 발표자의 자료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과의 거리에 따라 수정체가 초점을 맞추는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② 섬모체근의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수정체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③ 눈 초점 운동이 걸이 인대의 힘을 키워 초점을 맞추는 기능이 향상된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④ 먼 곳을 볼 때는 걸이 인대가 잡아당기고 있는 수정체가 납작해진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 ⑤ 휴대폰으로 인해 저하된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눈 초점 운동의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 ㉢에서 활용하였다.

3. 다음은 학생이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이를 바탕으로 학생의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컴퓨터 화면의 경우도 가까이에서 오랫동안 보는 것이 습관화되면 조절 긴장증을 유발할 수 있겠네.
- 눈 초점 운동을 꾸준히 하면 효과가 있다고 했으니 나도 하루에 10회 이상 눈 초점 운동을 해 봐야지.
- 휴대폰 사용으로 안구 질환 환자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증가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관련 자료를 인터넷 검색으로 찾아봐야겠어.
- 수정체를 모양체라고도 하고 걸이 인대를 친대라고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데 같은 대상에 서로 다른 이름을 붙인 이유는 무엇일까?

1. 위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청중과 공유하고 있는 경험을 언급하여 발표 내용과 관련된 청중의 지식을 환기해야겠어.
- ② 발표 내용의 순서를 안내하여 청중이 발표 내용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
- ③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청중과 상호작용해야겠어.
- ④ 발표 내용 선정의 이유를 밝혀 청중의 관심을 유도해야겠어.
- ⑤ 정보의 출처를 밝혀 발표 내용의 신뢰성을 높여야겠어.

- ① 발표 내용과 관련된 자신의 배경지식을 떠올리며 들었다.
- ② 발표자가 제시한 정보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들었다.
- ③ 발표 내용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유사한 경우에 적용하며 들었다.
- ④ 발표자가 제시한 방법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실천을 다짐하며 들었다.
- 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생긴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어떻게 수집할지를 생각하며 들었다.

[4~7] (가)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문이고, (나)는 (가)의 보도 이후에 개최된 협상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가)

□□ 백화점 주변의 극심한 교통 혼잡 해결되려나

구청 측과 □□ 백화점 측은 지난 9월 7일 구청에서 만나, 백화점 방문 차량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큰 틀에서 합의했다.

구청 측은 최근 □□ 백화점을 방문하는 차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교통 혼잡으로 인해 민원이 폭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청 측은 □□ 백화점에 해결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할 예정이며,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구청도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백화점 측도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주차장 확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을 걱정하며 구청 측의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백화점 주변의 교통량을 분석한 교통 연구소의 최근 자료에 의하면 백화점이 입점한 이후 그 전보다 주변 도로의 주말 평균 교통량이 45%나 증가했고, 평균 정체 시간도 20분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자료에서는 주말에 백화점으로 유입되는 차량의 수가 백화점의 주차 수용력을 40% 초과하기 때문에 주차장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인근 아파트 주민 김 모 씨는 백화점을 방문하는 차량으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는 일이 많으면서 이번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측은 세부적인 해결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내 추가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나)

구청 측: 오늘은 문제 해결을 위한 세부적인 방안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백화점 방문 차량이 많아지면서 주변의 교통 혼잡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주차장 10부제를 운영하여 백화점 방문 차량의 수가 줄어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A]

백화점 측: 고객의 입장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니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주차장 10부제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신 백화점 앞을 지나는 버스 노선을 증설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 측: 그 문제는 여러 입장에 따라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또 다른 교통 혼잡을 유발할 수 있어 곤란합니다.

백화점 측: ㉡ 그렇다면 백화점 앞을 지나는 기존 마을버스의 배차 간격을 줄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 측: 그것은 마을버스 회사와 협의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방문자들이 인근 아파트의 주차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백화점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아파트 입구를 막아 아파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B]

백화점 측: 그럼 무단 주차 예방을 위해 현수막을 부착하고 고객 알람 문자를 발송하는 등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주차 안내 요원을 백화점 외부에도 배치해 차량의 동선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측: 협조해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교통 혼잡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백화

점 내부에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합니다. △△ 백화점 처럼 건물 옥상에 주차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C]

백화점 측: 저희도 옥상 주차장을 검토하였으나 설계상의 문제로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외부에 새로운 부지를 찾고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서면으로 요청드린 바와 같이 구청 측에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청 측: 저희도 문제 해결 방안을 고심해 보았습니다. ○○ 유수지 주변 공터를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백화점과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도로로 이동은 가능한 거리이므로 괜찮지 않겠습니까? [D]

백화점 측: ○○ 유수지는 백화점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쉬운 선택이 아닙니다. 주차장 부족 현상은 주로 주말에 일어나므로 주말에 한해 백화점 가까이 위치한 구청 주차장을 개방해 주시는 것은 어떻습니까?

구청 측: 주말에 구청의 지하 주차장은 비어 있는 경우가 많아 안 되는 것은 아니지만, 출입구가 좁고 시설도 노후되어 많은 차량이 오갈 경우 안전 문제 등이 우려됩니다. 따라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

백화점 측: 그렇다면 저희가 구청 주차장의 시설을 개선하고 주말에는 안전 요원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측: 그렇게 하면 지역 주민들의 편의도 향상될 수 있겠네요. 그럼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화점 측: 대신 우리 백화점 방문자에 한해 주차 요금을 면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구청 측: 백화점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지 않는 상황에서 구청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할 경우 이곳으로 너무 많은 차량이 몰려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백화점 측: ㉢ 그럼 백화점 방문자에 대해 주차 요금을 할인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구청 측: 지하 주차장 개방 여부에 대한 검토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 요금 책정 등 구체적인 운영 방안은 차후에 논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화점 측: 네, 좋습니다. 긍정적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4. 다음은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작성한 메모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구청 측과 백화점 측 협상 취재]

<구청 측과의 인터뷰>

- □□ 백화점 방문 차량으로 인한 민원 발생 ①
-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요청 및 협조 의향 ②

<백화점 측과의 인터뷰>

-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 표명 및 협조 당부 ③

<교통 연구소 자료 수집 및 지역 주민 인터뷰>

- □□ 백화점 관련 교통 상황 통계 ④
- 시설 개선을 통한 주차 문제 해결 사례 ⑤

5. <보기>는 ㉠의 초안이다. 기자가 <보기>를 ㉠과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이 자료에서는 □□ 백화점의 주차장 추가 확보가 시급하다고 분석했다. 그리고 주말에 백화점으로 유입되는 차량의 수가 백화점의 주차 수용력을 40% 초과한다고 했다.

- ① 주요 개념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기 위해
② 주관적인 의견이 담긴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
③ 한 측의 입장으로 치우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
④ 긴 문장을 나누어 내용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⑤ 문제 원인과 해결 방안의 순서에 따라 정보를 재배치하기 위해

6. 다음은 '구청 측'에서 협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협상 계획서의 일부이다. 다음을 참고하여 [A] ~ [E]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Table with 2 columns: 논의할 내용, 세부 내용. Rows include 백화점 방문 차량 관련 민원, 주차장 공간 확보.

- ① [A]는 ㉡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상대측에 요구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② [B]는 ㉣, ㉤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상대측에 요구하고 있다.
③ [C]는 ㉥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다른 사례를 참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④ [D]는 ㉦와 관련하여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상대측의 수용 의사를 묻고 있다.
⑤ [E]는 ㉧, ㉨와 관련된 상대측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요구 조건을 직접 제시하고 있다.

7.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와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대측이 제시한 문제점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발화이다.
② 상대측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 언급하는 발화이다.
③ 상대측이 지적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요구 사항을 수정하여 제시하는 발화이다.
④ 상대측이 제기할 수 있는 의견을 가정하며 그 의견의 타당성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⑤ 상대측의 제안을 수용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상대측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발화이다.

[8~10] 다음은 작문 상황에 따라 학생이 쓴 초고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작문 상황]
o 목적: 예상 독자인 우리 학교 학생들을 설득함.
o 주제: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o 독자 분석
㉠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있다.
㉡ 글쓰기 능력은 선천적이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다.

[학생의 초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설명문이나 보고서 등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쓰게 되는 일이 많다. 전문가들은 지식 정보화 사회가 도래하면서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가 더욱 중요해졌다고 말하고 있다. 글쓰기의 효과에 대한 대다수 연구 논문에서도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이 학습 능력이나 업무 능력에 많은 도움을 준다고 밝히고 있다.
일부 학생들은 글쓰기 능력이 타고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은 선천적인 능력보다 후천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 국내의 ○○ 대학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대학에서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의 완성도가 그 이전보다 월등히 높아졌다고 한다. 또한 미국, 독일 등의 국가에서는 어릴 때부터 학생들에게 탐구 보고서와 같은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은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까?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 있는 정보를 담아내는 것이다. 가치 있는 정보란 독자의 요구와 흥미 등을 고려하면서도 참신하고 실용적이며 [A] 출처가 분명한 것을 말한다. 이러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가능하다.
처음부터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B])

8. ㉠, ㉡를 바탕으로 세운 글쓰기 계획 중 '학생의 초고'에 활용되지 않은 것은?

- ① ㉠을 고려하여,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전문가들의 견해를 제시한다.
② ㉠을 고려하여,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을 다룬 연구 논문의 내용을 제시한다.
③ ㉡를 고려하여,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교육의 효과에 대한 기관의 자료를 제시한다.
④ ㉡를 고려하여,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교육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외국의 사례를 제시한다.
⑤ ㉡를 고려하여, 훈련을 통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이 향상될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실험의 과정을 제시한다.

9. <보기>는 [A]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가) 글쓰기 능력 진단을 위한 설문 조사 (대상: 우리 학교 학생들)

1. 평소 어떤 종류의 글을 가장 많이 씁니까?

정보 전달을 위한 글 37%	사회적 상호 작용을 위한 글 26%	자기표현을 위한 글 24%	설득을 위한 글 13%
-----------------	---------------------	----------------	--------------

2. 정보 전달 글쓰기 능력에 만족하십니까?

아니오 74%	예 26%
---------	-------

3. 정보 전달 글쓰기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자료 수집 48%	내용 조직 34%	문장 표현 18%
-----------	-----------	-----------

(나) 작문 관련 서적 자료

정보 전달 글쓰기에서 유용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수집한 자료를 비교, 대조, 분류 등의 방식으로 정리하는 유형적 사고법을 활용해 체계화할 수 있어야 한다.

- ① (가): 정보 전달을 위한 글을 많이 쓴다는 점에서, 학생들이 다양한 글을 쓰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② (가): 자신의 글쓰기 능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자신감을 키워 주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③ (나): 유형적 사고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교, 대조, 분류 등의 방식으로 수집된 자료가 더 유용하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④ (나): 유용한 내용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직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집한 자료를 체계화하는 훈련도 필요하다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 ⑤ (가), (나): 내용 조직에 가장 큰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수준을 고려한 내용 조직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추가해야겠군.

10. [B]에 들어갈 내용을 <조건>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조 건 >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자유법을 활용해 글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면서 글을 마무리하자.

- ① 우리는 정보 전달이 일상이 된 시대에 살고 있다. 꾸준히 노력해서 정보 전달 글쓰기와 가까워지도록 하자.
- ② 정보는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자.
- ③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는 학업과 업무에 큰 영향을 준다.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반복적인 노력을 해 나가자.
- ④ 작은 물방울이 큰 바위를 뚫는다. 꾸준히 훈련하면 누구나 만족할 만한 정보 전달의 글을 쓸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 ⑤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은 지식 정보화 사회의 핵심 역량이다. 농부의 땀방울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듯이 정보 전달을 위한 글쓰기 능력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자.

[11~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동 표현은 주어와 남에게 동작을 하도록 시키는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파생적 사동과 통사적 사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우선 파생적 사동은 사동 접사 ‘-이-, -히-, -리-, -기-, -우-, -구-, -추-’ 등이 붙어 만들어지는데, ‘높이다’, ‘좁히다’, ‘울리다’, ‘옮기다’, ‘비우다’ 등이 그 예이다. 다만 일부 용언은 사동 접사의 결합에 제약이 있기도 하다. 예컨대 ‘(회사에) 다니다’, ‘(손을) 만지다’와 같이 어간이 ‘ㅣ’로 끝나는 동사, ‘(형과) 만나다’, ‘(원수와) 맞서다’와 같이 특정한 상대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 ‘(돈을) 주다’와 같이 주거나 받는 뜻을 가진 동사 등은 대개 사동 접사가 결합되지 못한다. 한편 사동 표현은 ‘떡게 하다’, ‘잡게 하다’와 같이 ‘-게 하다’에 의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를 통사적 사동이라 한다.

15세기 국어에서도 사동 표현이 쓰였다. 우선 파생적 사동은 주로 ‘-이-, -히-, -기-, -오/우-, -호/후-, -으/으-’ 등이 붙어 만들어졌다. 다만 ‘걸다’와 같은 ㄷ 불규칙 용언에 ‘-이-’가 결합될 때에는 어간 ‘-걸-’의 받침 ‘ㄷ’이 ‘ㄹ’로 바뀌어 ‘걸이다’[걸리다]로 쓰였다. 한편 현대 국어의 ‘-게 하다’에 해당하는 통사적 사동도 있었다. 이때 보조적 연결 어미는 ‘-게/기’가 주로 쓰였는데, 모음이나 자음 ‘ㄹ’로 끝나는 어간 뒤, 혹은 ‘이다’의 ‘이-’ 뒤에서는 ‘-에/의’로도 쓰였다. ‘얼게 하다’[얼게 하다]는 ‘얼-’에 ‘-게 하다’가 결합된 통사적 사동의 예이다.

11.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적절한 것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 보 기 >

- ㄱ. ‘(선물을) 받다’, ‘(시간이) 늙다’는 모두 파생적 사동이 불가능한 동사이다.
- ㄴ. ‘(뉘를) 기리다’와 달리 ‘(연을) 날리다’는 사동 접사가 붙어 만들어진 동사이다.
- ㄷ. ‘(공을) 던지다’와 달리 ‘(추위를) 견디다’는 어간이 ‘ㅣ’로 끝나기 때문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지 못한다.
- ㄹ. ‘(적과) 싸우다’, ‘(동생과) 다투다’는 모두 특정한 상대 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동 접사가 결합되지 못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호펠드는 권리 개념이 생각보다 복잡하기 때문에 엄밀하게 사용되지 않을 경우 잘못된 추론이나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X가 상대방 Y에 대하여 무언가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는 진술이 의미하는 바를 몇 가지 기본 범주들로 살펴 권리 개념을 이해해야 권리자 X와 그 상대방 Y의 지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권리의 기본 범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구권이다. 이는 ㉠ Y가 X에게 A라는 행위를 할 법적 의무가 있다면 X는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할 것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호펠드는 청구가 논리적으로 언제나 의무와 대응 관계를 이룬다고 보았다. 가령 X는 폭행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졌는데, Y에게 X를 폭행하지 않을 의무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권리는 무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구로서의 권리는 단순히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 이행 혹은 의무 불이행에 대한 일련의 법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의무의 내용이 달라지면 권리의 내용도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유권이다. 이는 X가 상대방 Y에 대하여 A라는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A를 행하지 않거나 행할 법적 자유가 있다는 의미이다. 이 권리의 특징은 의무의 부정에 있다. 가령 A를 행할 자유가 있다는 것은 A를 하지 않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이때 Y는 X가 A를 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즉 권리자의 상대방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할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자유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의 '청구권 없음'과 대응 관계에 있다.

셋째, 권능으로서의 권리이다. 이는 X가 상대방 Y에게 법적 효과 C를 야기하는 것이 인정된다면 X는 Y에게 효과 C를 초래할 수 있는 법적 권능을 가진다는 의미이다. 권능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신 또는 타인의 법률관계를 창출하거나 변경 또는 소멸시킬 수 있는 힘을 가리킨다. 가령 소송할 권리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때 권능을 행사하는 자의 상대방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 놓인 상태에 있다.

넷째, 면제권이다. 이는 X에게 C라는 효과를 야기할 법적 권능이 상대방 Y에게 없다면, X는 Y에 대하여 C라는 법적 효과에 대한 법적 면제를 가진다는 의미이다. 다시 말해 Y가 X와 관련하여 법률관계를 형성,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면제로서의 권리는 상대방이 그러한 처분을 '할 권능 없음'과 대응 관계에 있다. 그러므로 면제권의 부정은 권능을 가진 자의 처분 아래 놓여 있음을 의미한다. 가령 토지 소유권자는 자신 이외의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토지가 처분되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근대 이후 개인의 권리가 중시되자 법철학은 권리의 근본적 성격을 법적으로 존중되는 의사에 의한 선택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의 관점에서 볼 것인가를 놓고 지속적으로 논쟁해 왔다. 각각 의사설과 이익설로 불리는 두 입장은 권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서로 견해를 달리한다.

의사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어떤 사람이 무언가에 대하여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법률관계 속에서 그 무언가와 관련하여 그 사람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 다른 사람의 의사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음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의사설을 지지한 하트는 권리란 그것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그는 의무의 이행 여부를 통제할 권능을 가진 권리자의 선택이 권리의 본질적 요소라고 보았기 때문에 법이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권능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를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설은 타인의 의무 이행 여부와 관련된 권능, 곧 합리적 이성을 가진 자가 아니면 권리자가 되지 못하는 난점이 있다. 가령 사람이 동물 보호 의무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동물이 권리를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동물은 이성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의사설은 권리 주체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의사설은 면제권을 갖는 어떤 사람이 면제권을 포기함으로써 타인의 권능 아래 놓일 권리, 즉 스스로를 노예와 같은 상태로 만들 권리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이런 상황이 인정되기가 ㉡ 어렵다.

이익설의 기본적인 입장은 권리란 이익이며, 법이 부과하는 타인의 의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누구나 권리를 갖는다는 것이다. 그래서 타인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권리가 없다고 본다. 이익설을 주장하는 라스는 권리와 의무가 동전의 양면처럼 논리적으로 서로 대응하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권리가 의무를 정당화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즉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보는 입장을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이익이 타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는 것일 때 비로소 그 이익은 권리로서 인정된다고 보았다. 호펠드식으로 말한다면 법이 개인들에게 이익이 되는 바를 그 중요도나 특성에 따라서 청구권, 자유권, 권능 또는 면제권의 형식으로 보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익설의 난점으로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들 수 있다. 가령 갑이 을과 계약하며 병에게 쫓을 배달해 달라고 했다고 하자. 이익 수혜자는 병이지만 권리자는 계약을 체결한 갑이다. 쉽게 말해 을의 의무 이행에 관한 권능을 가진 사람은 병이 아니라 갑이다. 그래서 이익설은 이익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자가 있는 경우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는다. 또한 이익설은 권리가 실현하려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를 측정하기 쉽지 않다.

16.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나)와 달리, 권리의 기본 범주와 그 의미들을 분석하고 있다.
- ② (나)는 (가)와 달리, 특정 기준에 따라 권리의 종류를 분류하고 있다.
- ③ (가)와 (나) 모두 정치적으로 올바른 권리 개념이 무엇인지 논하고 있다.
- ④ (가)와 (나) 모두 권리론과 관련된 논쟁을 소개하며 각각의 장단점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가)는 권리론이 발전되어 온 과정을, (나)는 권리 간의 충돌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17. (나)의 '하트'와 '라즈'의 입장에서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하트: X가 권능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X는 권리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볼 수 있다.
- ② 하트: X가 Y에 대하여 의무 이행 요청을 포기한다면 X는 자신의 권능을 부정하는 것이다.
- ③ 하트: X가 권리자라면 X는 Y의 의무 이행을 면제할 수 있다.
- ④ 라즈: X의 이익이 곧 권리이므로 Y의 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이 없다면 X에게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⑤ 라즈: X의 이익이 Y에게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한 것일 때 X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18. (가)의 [자유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만일 내가 담 너머 이웃의 건물을 구경할 권리가 있다면, 그 이웃은 내가 구경하지 못하도록 담을 높게 세울 수 없다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이다.
- ② 만일 나와 친구가 길가의 낙엽을 보았을 때 내가 낙엽을 주을 권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낙엽을 주을 수 없다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이다.
- ③ 만일 내가 내 자동차를 친구에게 빌려주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 그 친구는 나에게 내 자동차를 빌릴 수 없다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이다.
- ④ 만일 내가 이웃의 가게에 들어갈 권리가 있다면, 그 이웃은 내가 가게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이다.
- ⑤ 만일 내가 원하는 대로 옷 입을 권리가 있다면, 타인은 내가 원하는 대로 옷 입는 것을 허용해야만 하는 것이 자유로서의 권리이다.

19. (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사설은 의무가 있는 곳에는 권리자가 필연적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 ② 의사설은 권리의 본질을 권리자의 의사에 의한 선택이라고 설명한다.
- ③ 의사설은 법적 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합리적 이성을 갖춘 자만 권리 주체로 인정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④ 이익설은 권리가 의무 존재의 근거가 된다고 본다.
- ⑤ 이익설은 권리가 실현하려는 이익과 그에 상충하는 이익을 비교해야 할 경우 어느 것이 더 우세한지 판단하기 어렵다.

20. (가)와 (나)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 언론 출판의 자유는 모든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이다. 이를 헌법으로 보장한 것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국민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이 얻는 이익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언론 출판의 자유는 국가를 비롯하여 다른 누구의 권능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민은 자신에게 부여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남에게 넘겨줄 수 없으며, 언론 출판의 자유를 보장하도록 국가에 부과된 의무를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한이 없다.

- ① 호펠드라면 ㉡는 국가의 권능 아래에 있지 않아 ㉡를 면제권으로 설명할 것이고, 하트라면 국민이 국가에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를 권리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 ② 호펠드라면 국가는 ㉡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권능이 없어 ㉡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할 것이고, 라즈라면 법적으로 보호되는 이익을 국민이 갖게 되어 ㉡는 권리로서 승인된다고 말할 것이다.
- ③ 호펠드라면 ㉡는 기본적 권리로서 국민이 좌지우지할 권능이 없어 ㉡를 면제권으로 설명할 것이고, 하트라면 ㉡는 국가에 의무를 부과할 만큼 중요성을 가지기 때문에 ㉡는 권리로서 승인된다고 말할 것이다.
- ④ 호펠드라면 어느 누구도 ㉡에 영향을 미치는 권능을 행사할 수 없어 ㉡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로 설명할 것이고, 하트라면 ㉡는 어느 누구나 누려야 할 이익에 해당하여 국민 모두가 권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 ⑤ 호펠드라면 ㉡를 권능으로서의 권리나 면제권 어느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라즈라면 권리자와 이익의 수혜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를 자신의 권리론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할 것이다.

21.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살림이 어려운 때일수록 힘을 합쳐야 한다.
- ② 휴가를 얻지 못해 여행 가기가 어려울 것 같다.
- ③ 이 책은 너무 어려워서 내가 읽기에는 참 힘들다.
- ④ 그 사람은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씩씩하게 살았다.
- ⑤ 나는 선생님이 어려워서 그 앞에서는 말도 제대로 못 한다.

[22~2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술 아래 길을 내고 못 위에 대를 싸니
풍월(風月) 연하(煙霞)는 좌우로 오는고야
이 사이 한가히 앉아 늙는 줄을 모르리라

<제3수>

㉠ 집 뒤에 자차리 뜰고 문 앞에 맑은 샘 길어
기장밥 익게 짓고 산채갱* 므로* 살아
조석에 풍미가 족함도 내 분인가 하노라

<제5수>

늙어 해울 일 없어 산중에 돌아오니
송국(松菊) 원학(猿鶴)이 다 나를 반기나다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 낙이망우(樂而忘憂) 하리라

<제10수>

도원이 있다 하여도 예 듣고 못 봤더니
홍하*이 만동(滿洞)하니 이 진짓 거기로다
이 몸이 또 어떠한도 무릉인인가 하노라

[A]

<제14수>

- 김득연, 「산중잡곡」 -

* 산채갱: 산나물로 만든 국. * 므로: 폭.
* 홍하: 붉은 노을.

(나)

별이(別異)실 외딴 마을 해는 어이 쉬 넘거니
봉당(封堂)에 자리 보아 더새고* 가자꾸나
밤중(中)만 사립 밖에 긴 바람 일어나며
새끼 곰 큰 호랑(虎狼)이 목 갈아 우는 소리
산골에 울려 있어 기염(氣焰)도 흥난할사*
칼 빼어 곁에 놓고 이 밤을 겨우 새워
앞내에 빠진 옷을 찢어서 손에 쥐고

㉡ 긴 별로(別路) 돌아 달려가 별불에 쬐어 입고

진(秦) 때의 숨은 백성 이제 와 보게 되면
도원이 여기보다 낫단 말 못하려니

천변(天邊)의 가려진 뉘 대관령 이었으니

위태고 높은 고개 축도난* 이 이렇던가

하늘에 돋은 별을 저기면 만질노다

망망대양이 그 앞에 둘러 있어

대지 산악을 일야의 혼드는 듯

밀 없는 큰 구렁에 한없이 쌓인 물이

만고에 한결같이 영축*이 있었던가

[B]

- 권섭, 「영삼별곡」 -

* 더새고: 밤을 지내고.
* 기염도 흥난할사: 기세가 어지럽구나.
* 축도난: 축나라로 가는 험한 길의 어려움.
* 영축: 가득 차는 것과 줄어드는 것.

(다)

정업원동은 창덕궁의 서쪽에 있는데, 숲과 골짜기가 깊숙한 데다가 그 골짜기로부터 시냇물이 흘러 내려와서 서늘하고 아름다운 운치를 갖고 있었다. 나는 일찍이 실록국에서 일하고 있어서 아침저녁으로 이곳을 지나게 되었다. 그러나 늘 직책에 얽매이다 보니 한 번도 조용히 찾아볼 수 없어서 한탄만 하였

다. 그러던 중 하루는 유희경을 따라 금천교 위에 올라갔다가 그 다리 아래로 시냇물이 흐르고 그 시냇물 위로 무수히 떨어진 꽃잎들이 떠내려오는 것을 보고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아마 무릉도원이 여기서 멀지 않나 보군. 이 물을 따라 올라가면 만리장성의 노역을 면하기 위해 피난 왔다가 수 백 년 동안 죽지도 않고 살아 있다는 그 진(秦)나라 사람도 만나 보겠군.”

[C]

그러자 유희경이 살짝 웃으며 말했다.

“이 물의 상류에 내가 살고 있네. 나는 그곳에 누대를 지어 놓았는데 마침 복숭아꽃이 활짝 피었다네. 어젯밤에 비바람이 몹시 불더니 아마 오늘 그 꽃잎들이 많이 떨어졌나 보군. 공이 만일 가 보겠다면 내 마땅히 이곳의 주인으로서 기쁘게 맞이하겠네.”

나는 기쁜 마음으로 그를 따라갔다. 한 백 발자국 남짓 올라가자 오른쪽에 경치 좋은 곳이 있었다. 그곳이 바로 그가 사는 곳이었다. 흐르는 물이 맑고 찬데, 그 물가에 돌을 쌓아 누대를 지었다. 그 누대의 섬들은 흐르는 물 위로 한 자 남짓 높게 쌓여 있었다. ㉢ 그래서 물을 빼고 있다는 뜻으로 ‘침류대’라는 이름을 붙인 것일까?

이 누대의 아래 위에는 다른 꽃이라고는 없고 오직 복숭아나무 수십 그루가 개울물의 좌우에 늘어서 있어서, 그 나무의 떨어지는 꽃들이 붉은 비가 되어 물 위로 떠내려갔다.

그리고 이 개울은 한 폭의 비단을 펼쳐 놓은 듯 출렁출렁 춤을 추었다. 옛날 사람이 일컫는 무릉도원이라는 곳도 여기보다 낫지는 않을 듯하다.

[D]

당나라 사람 조영이 그의 시에서 ‘무릉도원의 멋을 저갯거리에서도 찾을 수 있다.’고 한 뜻을 이제야 알 것 같다. 나는 감탄하며 말했다.

“㉣ 옛날 유신이라는 자는 천태산의 도원에 들어가서 신선을 만나 돌아오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대가 바로 유신 같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지금 다행스럽게도 이 신비스러운 경치를 보았으니 무릉도원을 찾아갔던 어부의 느낌이 나와 같았겠지. 내 이 물에 들어가서 이 물로 입을 가신다고 하여 방해될 것이 있겠는가?”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한바탕 웃은 뒤에 물가에 자리를 펴고 앉았다. 졸졸 흐르는 물소리에 굳이 씻지 않아도 깨끗해졌다.

㉤ 속세의 티끌 하나 묻어 있지 않은 곳이라서 온갖 잡념이 가시니, 정신과 기운이 저절로 맑아져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날아갈 듯하였다. 속세를 벗어난 경지가 참으로 이런 것인가?

- 이수광, 「침류대기」 -

22.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풍월’과 ‘연하’는 화자가 느끼는 한가함의 정서와 조응이 되는 대상을 나타낸 것이다.
- ② ‘이 사이’와 ‘산중’은 화자가 현재 자연을 즐기는 공간을 나타낸 것이다.
- ③ ‘늙는 줄을 모르리라’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화자의 심정을 나타낸 것이다.
- ④ ‘기장밥 익게 짓고 산채갱 므로 살아’는 소박한 삶을 살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 ⑤ ‘아이야 술 가득 부어라’는 풍류적 지향과 정신적 수양 사이의 고뇌를 나타낸 것이다.

23. (가)와 (나)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시적 의미를 부각하고 있다.
- ② (나)는 공간의 이동에 따라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③ (나)는 과장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모두 음보율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나)는 모두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24. <보기>를 참고하여 [A] ~ [D]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중국의 「도화원기」는 어부가 복숭아꽃이 만발한 숲속의 물길을 따라갔다가 수백 년 전 진(秦)나라 때 노역이나 난리를 피하여 온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상향인 무릉도원을 방문했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여기에 영향을 받은 우리 선조들은 무릉도원과 같은 이상향을 동경하다가 차츰 현실의 삶에서 무릉도원을 연상했다. 그래서 여행지나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만족감을 얻으면 무릉도원과 유사하다고 인식하기도 했다. 이러한 인식은 상상의 관념을 현실화하려는 욕망의 구현으로 볼 수 있다.

- ① [A]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관련지어 자신이 무릉도원에 산다는 사람들과 유사하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② [B]는 일상적 생활 공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무릉도원보다 나은 새로운 이상향을 찾기 위해 애쓰는 모습을 부각하고 있다.
- ③ [B]와 [C]는 모두 「도화원기」에 언급된 이상향에 모여 사는 사람들의 내용과 연결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C]와 [D]는 모두 「도화원기」와 관련된 자연물이 있는 시냇물의 광경을 통해 무릉도원을 연상하고 있다.
- ⑤ [B]는 여행지에서 체험한 풍경을, [D]는 특정한 인물의 생활 공간인 누대 주변의 풍경을 무릉도원과 비교하고 있다.

25. (나)의 화자의 심리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밤중에 짐승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불안감을 느꼈군.
- ② 걸어가던 길이 평탄해서 먼 산을 바라보며 즐거워했군.
- ③ 인가에 머무르지 못해 야외에서 잠자리를 찾으며 탄식했군.
- ④ 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부재하는 임에 대한 그리움을 느꼈군.
- ⑤ 높은 산들로 시야가 차단되어 바다를 보지 못하게 되자 아쉬워했군.

26.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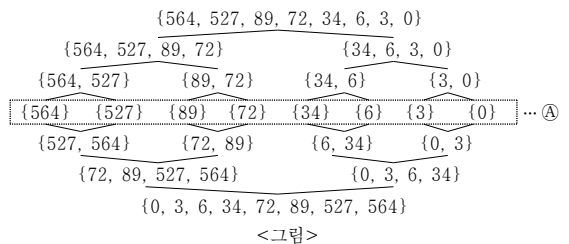
- ① ㉠: 자신의 생활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② ㉡: 냇물에 젖은 옷을 말리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③ ㉢: 누대가 놓인 형세를 토대로 누대의 이름을 붙인 이유를 짐작하고 있다.
- ④ ㉣: 은밀하게 혼자서만 경치를 즐기려는 태도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 ⑤ ㉣: 아름다운 경치에 몰입하여 느끼게 된 흥취를 표현하고 있다.

[27~3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알고리즘은 컴퓨터에서 문제 해결 방법을 논리적인 순서로 설명하거나 표현하는 절차이다. 그런데 문제 해결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진다.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분석할 때 흔히 시간 복잡도를 사용하는데, 시간 복잡도는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연산의 횟수를 이용하여 나타낸다. 이때 연산에는 산술 연산뿐만 아니라 원소 간의 비교를 나타내는 비교 연산도 포함된다. 알고리즘 분야 중 정렬은 원소들을 오름차순이나 내림차순과 같이 특정한 순서에 따라 배열하는 것으로, 정렬을 통해 특정 원소를 탐색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 삽입 정렬은 정렬된 부분에 정렬할 원소의 위치를 찾아 삽입하는 방식이다.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먼저 564를 정렬된 부분으로 가정하고 그다음 원소인 527을 564와 비교하여 527을 564의 앞으로 삽입한다. 그리고 그다음 원소인 89를 정렬된 부분인 {527, 564} 중 564와 비교하여 564의 앞으로 삽입하고, 다시 527과 비교하여 527의 앞으로 삽입한다. 정렬된 부분과 정렬할 원소를 비교하여, 삽입할 필요가 없다면 순서를 그대로 유지한다. 삽입 정렬은 원소들을 비교하여 삽입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시간 복잡도는 28번(1+2+3+4+5+6+7)이 된다.

㉡ 병합 정렬은 정렬하려는 집합을 두 개의 부분 집합으로 반복 분할한 뒤 다시 병합하면서 하나의 정렬된 집합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집합을 이루는 원소의 개수가 적을수록 정렬에 필요한 연산 횟수가 줄어든다.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병합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 ㉢ <그림>의 ㉣와 같이 8개의 부분 집합이 될 때까지 전체 집합을 분할한다.



그 후 {564}와 {527}을 비교하여 {527, 564}로 병합하고, {89}와 {72}를 비교하여 {72, 89}로 병합한다. {527, 564}를 {72, 89}와 병합할 때에는 527과 72를 비교하고, 527과 89를 비교하여 {72, 89, 527, 564}로 병합한다. 병합 정렬은 원소들을 비교하여 정렬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비교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는데, 이 경우 시간 복잡도는 12번((1+1+1+1)+(2+2)+4)이 되고 삽입 정렬에 비해 시간 복잡도가 감소한다.

한편 ㉣ 기수 정렬은 원소들의 각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여 각 자릿수에 해당하는 큐에 넣는 방식이다. 큐는 먼저 넣은 자료를 먼저 내보내는 자료 구조이다. 원소들의 각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나머지를 구하는 모듈로(modulo) 연산을 수행한다.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기수 정렬을 사용하는 경우, 먼저 모듈로 연산으로 일의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여 564를 큐

4에, 527을 ㉠7에, 89를 ㉠9에, 72를 ㉠2에, 34를 ㉠4에, 6을 ㉠6에, 3을 ㉠3에, 0을 ㉠0에 넣는다. 이렇게 1차 정렬된 원소들을 다시 모듈로 연산으로 십의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여 차례대로 해당하는 ㉠에 넣어 2차 정렬한다. 이때 해당하는 자릿수가 없다면 자릿수의 숫자를 0으로 간주하여 정렬한다. 기수 정렬은 원소들 중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의 자릿수만큼 원소들의 자릿수의 숫자를 확인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모듈로 연산의 횟수를 구하여 시간 복잡도를 나타낼 수 있다. 이 경우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면 시간 복잡도는 24번(8+8+8)이 된다.

정렬 알고리즘은 원소들의 초기 나열 상태에 따라 효율성이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컴퓨터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여러 정렬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사용한다.

2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과 달리 ㉠에서는 정렬된 부분의 원소와 정렬할 원소를 비교한다.
- ② ㉠과 달리 ㉠에서는 원소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정렬된 집합을 만들기 위한 연산 횟수가 감소한다.
- ③ ㉠과 달리 ㉠과 ㉠에서는 집합을 각각의 원소로 분할한 뒤 정렬한다.
- ④ ㉠과 달리 ㉠에서는 원소들의 자릿수에 따라 모듈로 연산의 반복 횟수가 결정된다.
- ⑤ ㉠과 달리 ㉠과 ㉠에서는 원소들 간의 비교 횟수를 통해 시간 복잡도를 구한다.

28.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 집합 {564, 527, 89, 72}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 집합 {0, 3, 6, 34, 72, 89, 527, 564}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 집합 {34, 6, 3, 0, 564, 527, 89, 72}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하는 경우
 (단, 정렬 알고리즘을 사용할 때, 윗글에 제시된 방식을 따른다.)

- ① ㉠은 삽입 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6번이 되겠군.
- ② ㉠은 삽입 정렬보다 병합 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증가하겠군.
- ③ ㉡는 병합 정렬보다 삽입 정렬을 사용할 때 시간 복잡도가 감소하겠군.
- ④ ㉢는 병합 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12번이 되겠군.
- ⑤ ㉡와 ㉢는 기수 정렬을 사용하면 시간 복잡도가 동일하겠군.

29.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 집합 {564, 527, 89, 72, 34, 6, 3, 0}의 원소를 오름차순으로 정렬할 때 기수 정렬을 사용해 보자.

	㉠0	㉠1	㉠2	㉠3	㉠4	㉠5	㉠6	㉠7	㉠8	㉠9
1차 정렬	0		72	3	34 564		6	527		89
결과	{0, 72, 3, 564, 34, 6, 527, 89}									

↓

	㉠0	㉠1	㉠2	㉠3	㉠4	㉠5	㉠6	㉠7	㉠8	㉠9
2차 정렬	6 3 0		527	34			564	72	89	
결과										

↓

	㉠0	㉠1	㉠2	㉠3	㉠4	㉠5	㉠6	㉠7	㉠8	㉠9
3차 정렬	89 72 34 6 3 0							564 527		
결과	{0, 3, 6, 34, 72, 89, 527, 564}									

- ① 1차 정렬에서 564와 34를 ㉠4에 넣는 것은 일의 자릿수의 숫자가 동일하기 때문이군.
- ② 2차 정렬의 결과가 {0, 3, 6, 527, 34, 564, 72, 89}로 나타나는군.
- ③ 3차 정렬에서 0, 3, 6 모두 십의 자릿수가 0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0에 저장되는군.
- ④ 1차 정렬에서는 ㉠4에 564를 가장 먼저 넣고, 3차 정렬에서는 ㉠0에 0을 가장 먼저 넣는군.
- ⑤ 자릿수가 가장 큰 원소는 백의 자릿수이기 때문에 3차 정렬 결과 모든 원소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는군.

30.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체 집합을 정렬하는 것보다 부분 집합을 정렬하는 것이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 ② 부분 집합의 원소들 중 자릿수가 큰 원소일수록 비교 연산 횟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 ③ 부분 집합 원소들의 초기 나열 상태에 따라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 ④ 전체 집합을 반복적으로 분할할수록 비교 연산 횟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 ⑤ 전체 집합을 각각의 부분 집합으로 다시 분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무엇을 실었느냐 화물 열차의
 검은 문들은 탄탄히 잠겨졌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두만강 저쪽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자무스*에서 온다는 사람들과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눈보라 치기 전에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남도 사람들과
 북어 쪼가리 초담배 밀가루 떡이랑
 나눠서 요기하며 내사 서울이 그리워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

푸르른 바다와 거리거리들
 설움 많은 이민 열차의 흐린 창으로
 그저 서러이 내다보던 골짜기 골짜기를
 갈 때와 마찬가지로
헐벗은 채 돌아오는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헐벗은 나요
 나라에 기쁜 일 많아
 울지를 못하는 함경도 사내

총을 안고 뿔가*의 노래를 부르던
 슬라브의 늙은 병정은 잠이 들었다
 바람 속을 달리는 화물 열차의 지붕 우에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
 - 이용악, 「하나씩의 별」 -

* 자무스: 자무쓰, 중국 북단의 한 지명.
 * 뿔가: 러시아 서부의 불가강.

(나)
 김정 사포를 쓰고 똑딱선(船)을 내리면
 우리 고향의 선창가는 길보다도 사람이 많았소
 양지바른 뒷산 푸른 송백(松柏)을 끼고
 남쪽으로 트인 하늘은 기(旗)빨처럼 다정하고
 낮설은 신작로 옆대기를 들어가니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
 소리 높이 창가하고 돌아가던
 저녁놀이 사라진 채 남아 있고
 그 길을 찾아가면
우리 집은 유약국
 행이불언(行而不言) 하시는 아버지께선 어느덧
 돋보기를 쓰시고 나의 절을 받으시고
 현 책력(冊曆)처럼 **애정에 낡으신 어머니 옆에서**
 나는 끼고 온 **신간(新刊)을 그림책인 양** 보았소
 - 유치환, 「귀고」 -

[A]

[B]

3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명사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시적 대상에 주목하게 하고 있다.
 - ② 대화체와 독백체를 교차하여 시적 상황을 구체화하고 있다.
 - ③ 수미 상관의 방식을 통해 구조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④ 색채 이미지를 통해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⑤ 어조의 변화를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32.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시에서 귀향은 화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정서를 환기하며 형상화된다. (가)에는 객지에서 고단한 삶을 살다가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돌아오는 유랑민과 이를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난다. 화자는 함께 열차를 탄 자신과 유랑민들이 변환기의 불안감 속에서도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한편 (나)에는 귀향하는 과정에서 화자가 유년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린 시절 고향에 대한 향수를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에서 열차를 탄 사람들이 ‘험한 땅에서 험한 변 치르고’ ‘헐벗은 채 돌아’온다는 것은, 객지에서 고단하게 살았을 사람들의 삶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가)에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사람들과 달리 화자가 ‘고향과는 딴 방향으로 흔들려 간다’는 것은, 변환기의 현실에서 유랑민과 다른 삶을 살아온 화자의 회한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가)에서 ‘우리 제각기 드러누워 / 한결같이 쳐다보는 하나씩의 별’을 반복한 것은, 열차를 탄 사람들과 함께 저마다 희망을 품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겠군.
- ④ (나)에서 ‘내가 크던 돌다리’와 ‘집들이’를 거쳐 ‘우리 집’으로 가는 것은, 고향 마을의 풍경이 화자에게 유년기의 추억을 떠올리게 한 것이겠군.
- ⑤ (나)에서 ‘애정에 낡으신 어머니 옆에서’ ‘신간’을 ‘그림책인 양’ 보는 것은, 고향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낸 것이겠군.

33. [A],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의 ‘거리거리’와 [B]의 ‘신작로’에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화자의 변화된 인식이 내포되어 있다.
- ② [A]의 ‘이민 열차’는 현실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B]의 ‘똑딱선’은 미래에 대한 화자의 기대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③ [A]의 ‘흐린 창’과 [B]의 ‘양지바른 뒷산’은 시적 분위기와 대비되는 이미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의 ‘골짜기 골짜기’에는 떠나는 이의 슬픔이, [B]의 ‘하늘’에는 돌아온 이의 반가움이 투영되어 있다.
- ⑤ [A]의 ‘사람들’과 [B]의 ‘사람’에는 화자의 연민이 내포되어 있다.

[34~3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아들은

그러나, 돌아와, 채 어머니가 뭐라고 말할 수 있기 전에, 입 때 안 주무셨어요, 어서 주무세요, 그리고 자리옷으로 갈아입고는 책상 앞에 앉아, 원고지를 퍼 놓는다.

그런 때 옆에서 무슨 말이든 하면, 아들은 언제나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것은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그래, 어머니는 가까스로, 늦었으니 어서 자거라, 그걸랑 [A] 널 쓰구..... 한마디를 하고서 아들의 방을 나온다.

“얘기는 널 아침에래두 하지.”

그러나 열한 점이나 오정에야 일어나는 아들은, 그대로 소리 없이 밥을 떠먹고는 나가 버렸다.

때로, 글을 팔아 몇 푼의 돈을 구할 수 있을 때, 그 어느 한 경우에, 아들은 어머니를 보고, 뭐 잡수시구 싶으신 거 없어요, 그렇게 묻는 일이 있었다.

어머니는 직업을 가지지 못한 아들이, 그래도 어떻게 몇 푼의 돈을 만들어,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신기하게 기뻐하였다.

“어서 내 생각 말구, 네 양말이나 사 신어라.”

그러면, 아들은 으레, 제 고집을 세웠다. 아들의 고집 센 것을, 물론 어머니는 좋게 생각 안 했다. ㉠ 그러나 이러한 경우라면, 아들이 고집을 세우면 세울수록 어머니는 만족하였다. 어머니의 사랑은 보수를 원하지 않지만, 그래도 자식이 자기에게 대한 사랑을 보여 줄 때, 그것은 어머니를 기쁘게 해 준다.

대체 무얼 사 줄 테냐, 무어든 어머니 마음대로. 먹는 게 아니래도 좋으냐. 네. 그래 어머니는 에누리 없이 욕망을 말해 본다.

“너, 나, 치마 하나 해 주려무나.”

아들이 혼연히 응낙하는 걸 보고,

“네 아주머니는 뭐 안 해 주니?”

아들은 치마 두 갑의 가격을 묻고, 그리고 갑자기 엄숙한 얼굴을 한다. 혹은 밤을 새우기까지 해 아들이 번 돈은, 결코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 어머니는 말한다.

“그럼 네 아주머니나 해 주렴.”

아들은, ㉡ 아니예요, 넉넉해요. 갖다 끊으세요. 그리고 돈을 내놓았다.

㉢ 어머니는, 얼마를 주저한다. 그러나, 마침내, 그는 가장 자랑스러이 돈을 집어 들고, 애애 웃감 바꾸러 나가자, 아재비가 치마 허라고 돈을 주었다. 네 아재비가..... 그렇게 건넌방에서 재봉틀을 놀리고 있던 만머느리를 신기하게 놀래어 준다.

치마가 되면, 어머니는 그것을 입고, 나들이를 하였다.

일갓집 대청에 가 주인 아낙네와 마주 앉아, 갓난애같이 어머니는 치마 자랑할 기회를 엿본다. 주인마누라가, 선불리, 참, 치마 좋은 거 해 입으셨구면, 이라고나 한다면, 어머니는 서슴지 않고,

“이거 내 둘째 아이가 해 준 거죠. 제 아주머니 해하구, 이거 하구.....”

이렇게 묻지도 않은 말을 하였다. 어머니는 그것이 아들의 훌륭한 자랑거리라 생각하였다.

자식을 자랑할 때, 어머니는 얼마든지 뻔뻔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늘 있을 수 없다. 어머니는 역시 글을 쓰는 것보다는 월급쟁이가 몇 곱절 낫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렇게 재주 있는 내 아들은 무엇을 하든 잘하리라고 혼자 작정

해 버린다. 아들은 지금 세상에서 월급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말한다. 하지만, 보통학교만 졸업하고도, 고등학교만 나오고도, 회사에서 관청에서 일들만 잘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 어머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도, 또 ㉣ 동경엘 건너가 공부 하고 온 내 아들이, 구해도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구보는

집을 나와 천변 길을 광고로 향해 걸어가며, 어머니에게 단 한마디 “네—” 하고 대답 못했던 것을 뉘우쳐 본다. 하기가 중문을 여닫으며 구보는 “네—” 소리를 목구멍까지 내어 보았던 것이나 중문과 안방과의 거리는 제법 큰 소리를 요구하였고, 그리고 공교롭게 활짝 열린 대문 앞을, 때마침 세 명의 여학생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그렇더라도 대답은 역시 해야만 하였었다고, 구보는 어머니의 외로워할 때의 표정을 눈앞에 그려 본다. 처녀들은 어느 틈엔가 그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구보는 마침내 다리 모퉁이에게서 이르렀다. ㉤ 그의 일 있는 듯실게 꾸미는 걸음걸이는 그곳에서 멈추어진다. 그는 어딜 갈까, 생각해 본다. 모두가 그의 갈 곳이었다. 한 군데라 그가 갈 곳은 없었다.

(중략)

한길 위에 사람들은 바쁘게 또 일 있게 오고 갔다. 구보는 포도 위에 서서, 문득, 자기도 창작을 위해 어디, 예(例)하면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할까 생각한다. ‘모테로노로지오’를 게을리하기 이미 오래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과 함께 구보는 격렬한 두통을 느끼며, 이제 한 걸음도 더 옮길 수 없을 것 같은 피로로 전신에 깨닫는다. 구보는 얼마 동안을 망연히 그곳, 한길 위에 서 있었다.....

얼마 있다,

구보는 다시 걸기로 한다. 여름 한낮의 피약별이 맨머릿바람의 그에게 현기증을 주었다. 그는 그곳에 더 그렇게 서 있을 수 없다. 신경 쇠약. 그러나 물론, 쇠약한 것은 그의 신경뿐이 아니다. 이 머리를 가져, 이 몸을 가져, 대체 얼마만 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이고—. 때마침 옆을 지나가는 장년의, 그 정력가형 육체와 탄력 있는 걸음걸이에 구보는, 일종 위압조차 느끼며, 문득, 아홉 살 때에 집안 어른의 눈을 기어 「춘향전」을 읽었던 것을 뉘우친다. 어머니를 따라 일갓집에 갔다 와서, 구보는 저도 얘기책이 보고 싶다 생각하였다. 그러나 집안에서는 그것을 금했다. 구보는 남몰래 안잠자기에게 문의하였다. 안잠 자기는 세책집에는 어떤 책이든 있다는 것과, 일 전이면 능히 한 권을 세내 올 수 있음을 말하고, 그러나 꾸중 들우. 그리고 다음에, 재밌긴 「춘향전」이 제일이지, 그렇게 그는 혼잣말을 하였었다. 한 분(分)의 동전과 한 개의 주발 뚜껑, 그것들이, 십칠 년 전의 그것들이, 뒤에 온, 그리고 또 올, 온갖 것의 근원이었을지도 모른다. 자기 전에 읽던 얘기책들.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 구보의 건강은 그의 소년 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던 것임에 틀림없다.....

- 박태원, 「소설가 구보 씨의 일일」 -

* 모테로노로지오: 고현학(考現學). 현대의 경향, 풍속, 세태, 유행을 탐구하는 학문이나 그 태도를 말함.

34.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보는 어머니에게 말할 기회를 빼앗은 세 여학생에게 항의했다.
- ② 어머니는 일жат집 주인 아낙네에게 아들의 직업을 조심스럽게 자랑하였다.
- ③ 안잠자기는 어린 시절의 구보에게 얘기책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었다.
- ④ 구보는 어머니에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월급쟁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하였다.
- ⑤ 맘머느리는 구보의 돈으로 자신의 치마를 해 주겠다는 어머니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하였다.

3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어머니가 서술자가 되어 자신의 행동과 심리를 제시하고 있다.
- ② [B]는 구보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
- ③ [A]와 달리 [B]는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지적 시점을 통해 갈등 상황을 부각하고 있다.
- ④ [B]와 달리 [A]는 서술자의 시각을 통해 상황의 변화에 대한 서술자의 인식을 전달하고 있다.
- ⑤ [A]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B]는 구보의 입장에서 바라본 사건을 이야기 외부의 서술자가 전달하고 있다.

36.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에는 자신을 위하는 구보의 마음 씩씩이에 뿌듯해하는 어머니의 심정이 드러나 있다.
- ② ㉡에는 앞으로 가족들에게 가장 노릇을 할 수 있게 된 구보의 만족감이 드러나 있다.
- ③ ㉢에는 구보가 힘들게 벌여 온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어머니의 부담감이 나타나 있다.
- ④ ㉣에는 구보가 처한 상황을 납득하기 어려워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나타나 있다.
- ⑤ ㉣에는 마땅히 갈 곳을 정하지 못해 망설이는 구보의 태도가 드러나 있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구보는 작가의 자의식이 투영된 인물이다. 구보는 일제 강점기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소설가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성찰한다. 구보는 자신의 쇠약하고 병든 몸을 언급하는데, 이는 문학에 경도되어 건강과 자신감을 잃은 지식인의 무기력한 자의식을 표출한 것이다.

- ① '밤을 새우'면서 글을 써서 번 돈이 '대단한 액수의 것이 아니'라는 것에서, 소설가로서의 구보의 삶이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함을 짐작할 수 있겠군.
- ② '창작을 위해' '서소문정 방면'이라도 답사를 해 볼까 생각하며 '모테로노로지오'를 게을리했다고 하는 것에서, 구보가 소설가로서의 정체성을 성찰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겠군.
- ③ '이 머리'와 '이 몸'으로 '대체 얼마만 한 일을 나는 하겠단 말인고'라고 하는 것에서, 지식인으로서 무기력한 구보의 모습을 알 수 있겠군.
- ④ '격렬한 두통'과 전신의 '피로'를 느끼며 '얼마 동안을 망연히'서 있는 것에서, 창작을 억압하는 일제 강점기 상황에 대한 구보의 비판 의식을 확인할 수 있겠군.
- ⑤ '밤을 새워 읽던 소설책들'로 인해 건강이 '소년 시대에 결정적으로 손상되었'다고 한 것에서, 구보가 어린 시절부터 문학에 경도되어 살아왔음을 알 수 있겠군.

[38 ~ 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폐의 혈액으로 들어온 산소는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 전달되어 에너지 생성에 이용되고, 물질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 탄소는 혈액을 통해 심장을 거쳐 폐로 전달되어 몸 밖으로 배출된다. 혈액과 폐포, 혈액과 조직 사이의 기체 교환은 분압 차에 따른 확산에 의해 일어나며, 기체는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확산된다. 한편 혈액을 운반하는 혈관 중에 심장에서 나와 폐나 각 조직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동맥, 폐나 각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액이 흐르는 혈관을 정맥이라고 한다. 폐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심장을 거쳐 각 조직으로 흐르는 혈액은 ㉡ 동맥혈, 조직에서 기체 교환이 일어난 후 폐로 흐르는 혈액은 ㉢ 정맥혈이다.

폐포 내 산소 분압은 100~110mmHg이고 그 주위의 모세 혈관 내 정맥혈의 산소 분압은 40mmHg이므로 폐포 내 산소가 폐포를 둘러싼 모세 혈관의 정맥혈로 확산된다. 이때 산소가 풍부해진 혈액은 심장을 거쳐 신체의 각 조직으로 흘러가고, 각 조직의 모세 혈관을 흐르는 동맥혈의 산소 분압은 100mmHg, 조직 내 산소 분압은 평균 40mmHg이므로 동맥혈 내의 산소는 조직으로 확산된다. 산소를 방출한 혈액은 심장을 거쳐 폐로 흘러간다. 그런데 산소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작아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운반되는 양은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의 약 1.5%에 ㉞ 불과하고, 약 98.5%는 적혈구 내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산소 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

산소 분압에 따른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내는 곡선을 산소 해리 곡선이라고 하는데, 산소 해리 곡선에서 가로축은 혈액 내의 산소 분압, 세로축은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를 나타낸다. 어떤 산소 분압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정도인 산소 포화도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분리된 정도인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100%이다. 이 곡선은 완만한 S자형으로,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해리되는 산소의 양은 산소 분압이 40~100mmHg 구간보다 0~40mmHg 구간에서 더 많다.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는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하려는 경향을 나타내는데, 산소 친화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는 산소 분압 외에도 혈액의 pH(수소 이온 농도 지수), 온도 등이 있다. 어떤 조직의 물질대사가 활발해지면 이산화 탄소의 증가로 인해 주변 모세 혈관 내 혈액의 pH가 낮아진다. 혈액의 pH가 낮아지면 헤모글로빈의 산소 친화도가 작아져서 산소의 해리가 ㉟ 촉진되어 주변 조직으로 산소가 방출된다. 즉 산소 분압이 같을 때 pH가 더 낮은 곳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더 많은 산소가 방출된다. 또한 운동과 같은 신체 활동으로 인해 온도가 높아진 조직 주변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에서도 산소가 더 쉽게 해리되어 그 조직으로 운동 전보다 더 많은 산소가 방출된다.

한편 각 조직의 물질대사 결과 생긴 노폐물인 이산화 탄소도 혈액으로 확산되어 운반된다. 조직의 이산화 탄소 분압은 평균 46mmHg이고, 동맥혈 내 이산화 탄소 분압은 40mmHg이므로 조직 내 이산화 탄소는 조직 주변 모세 혈관을 흐르는 혈액으로 확산된다.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 탄소의 약 7%는 혈장에 용해된 상태로, 약 23%는 적혈구에 있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 형태로 운반된다.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은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쉽게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여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을 형성하므로 정맥혈이 동맥혈보다도 헤모글로빈을 이용한 이산화 탄소 운반에 ㉠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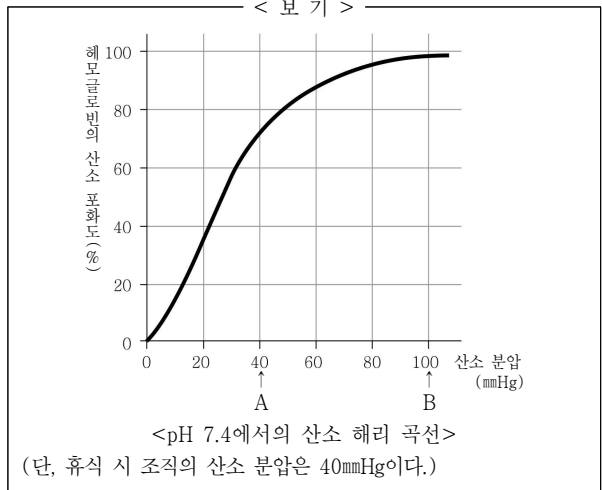
그리고 약 70%의 이산화 탄소는 탄산수소 이온 형태로 운반된다. 조직에서 확산된 이산화 탄소는 주로 적혈구 내에서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물과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탄산은 수소 이온과 탄산수소 이온으로 이온화된다. 이때 수소 이온은 주로 헤모글로빈과 결합하고 탄산수소 이온은 혈장으로 확산되어 폐로 운반된다. 폐포 주위의 모세 혈관에서는 이와 반대의 반응이 일어난다. 즉 탄산수소 이온은 적혈구로 이동하여 수소 이온과 재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고, 탄산은 탄산 무수화 효소의 작용으로 이산화 탄소와 물이 된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이산화 탄소는 폐포 내로 확산되어 체외로 ㉡ 배출된다.

* 분압: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에 의한 압력.
* 혈장: 혈액에서 혈구를 제외한 액상 성분.

38. 밑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 ① 탄산 무수화 효소는 이산화 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을 형성하는 과정과 탄산이 이산화 탄소와 물로 되는 과정에서 작용한다.
- ② 폐에서 조직으로 운반되는 산소와 조직에서 폐로 운반되는 이산화 탄소는 각각 세 가지 방식으로 운반된다.
- ③ 산소와 결합하지 않은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헤모글로빈보다 이산화 탄소와 결합하기 어렵다.
- ④ 이산화 탄소와 물이 결합하여 탄산이 형성되는 반응은 주로 혈장에서 일어난다.
- ⑤ 평균적으로 조직 내의 산소 분압은 46mmHg, 이산화 탄소 분압은 40mmHg이다.

39.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산소 분압이 낮아질 때 A부터 B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보다 A 이하 구간에서 감소되는 산소 포화도가 더 크다.
- ② 조직의 온도가 휴식 시보다 상승하면 그 조직의 주변을 흐르는 혈액의 산소 포화도는 A일 때보다 증가한다.
- ③ 헤모글로빈의 산소 포화도와 산소 해리도를 더한 값은 A와 B에서 동일하다.
- ④ B와 A에서의 산소 포화도 차이만큼의 산소가 휴식 시 조직으로 전달된다.
- ⑤ A에서의 산소 해리도는 B에서의 산소 해리도보다 더 크다.

40.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산소 분압은 조직을 지나면 낮아진다.
- ② ㉡에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한 산소의 양이 혈장에 용해된 산소의 양보다 많다.
- ③ ㉢는 폐포를 지나면 이산화 탄소 분압이 낮아진다.
- ④ ㉣에서 이산화 탄소는 대부분 카르바미노헤모글로빈의 형태로 운반된다.
- ⑤ ㉤는 조직에서 심장으로 가는 혈관과, 심장에서 폐로 가는 혈관에 흐른다.

41. 윗글을 참고하여 <보기>에 대해 반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가. 일산화 탄소 중독은 일산화 탄소의 지나친 흡입으로 어지럼증, 혼수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일산화 탄소는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려는 경향이 산소의 200배 이상이기 때문에 산소와 결합할 수 있는 헤모글로빈의 양을 감소시킨다. 그리고 일산화 탄소는 조직에서 산소 헤모글로빈으로부터 산소의 방출을 억제한다.

나. 과다 호흡 증후군은 동맥혈의 이산화 탄소 농도가 정상 범위 아래로 떨어져 호흡 곤란,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게 하는 응급 처치를 하면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 호흡성 산증은 폐에서 기체 교환의 감소로 동맥혈의 이산화 탄소 분압이 증가하여 호흡 곤란,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 ① 가: 일산화 탄소를 지나치게 흡입하게 되면, 생성되는 산소 헤모글로빈의 양이 정상시보다 줄어들겠군.
- ② 가: 일산화 탄소는 산소 헤모글로빈에서 산소가 잘 해리되지 않게 하겠군.
- ③ 나: 과다 호흡 증후군은 폐를 통한 이산화 탄소 배출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경우에 발생하는 증상이겠군.
- ④ 나: 봉지에 입을 대고 호흡을 하게 되면 정상시보다 더 적은 양의 이산화 탄소를 흡입하게 되겠군.
- ⑤ 다: 호흡성 산증이 나타난 사람의 체내에는 이산화 탄소가 배출되지 못해 축적되어 있겠군.

42.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한 것은?

- ① ㉠: 널리 알림.
- ② ㉡: 목적인 바를 시도하였으나 이루지 못함.
- ③ ㉢: 다그쳐 빨리 나아가게 함.
- ④ ㉣: 반드시 요구되는 바가 있음.
- ⑤ ㉣: 나누어 줌.

[43~4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명나라 양 부인에게 삼 형제가 있는데, 맏이 위윤은 현숙한 반씨를 아내로 맞아 아들 흥을 얻는다. 위진의 아내 채씨와 위준의 아내 맹씨가 반씨를 모해하자 양 부인이 채씨를 친정으로 보낸다. 채씨의 부친 채 승상은 이에 분노하여 위윤을 귀양 보내고, 양 부인은 채씨를 들이지 말라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반씨가 시체를 붙들고 통곡 혼절하니, 흥이 대경하여 수족을 주무르며 약물을 드리오니 이윽고 진정하거늘, 흥이 위로 왈, “모친은 진정하사 초상을 극진히 하소서.”

반씨 망극한 중이나 그 말을 옳게 여겨 치상(治喪)할새, 문중이 모여 채씨에게 부고를 알릴 것을 의논하니, 위진이 왈,

“㉠ 채씨가 잘못함이 아니라 모친이 잠깐 노하여 보내 계시니, 무슨 일로 알리지 아니하리오.”

하고, 즉시 시비를 불러 왈,

“채씨의 집에 가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 하라. 그렇지 않으면 부부의 의를 끊으리라.”

(중략)

차설, 위진이 크게 노하여 왈,

“반씨는 어떤 사람인데 상중에 시비(是非)를 돌우어 요란하게 하느냐. 형님이 아니 계시오 내가 주장*할 것이니, 두 번 이르지 말라.”

하고 노복을 재촉하여 보내니, 흥이 죽은 양 부인의 옆에 엎드려 통곡하더니 큰 소리로 왈,

“숙부는 주장이 되었을 따름이거늘 초상 망극 중에 벌써 할머니의 유언을 저버리시니, 한갓 아내만 중히 여기사 저다지 노하시니, 소질*이 알 바는 아니로되, 금일 문중이 모두 다 공론이 여차한데도 구태여 유언을 저버리니, 이는 문중의 뜻에도 맞지 아니하며 소질의 마음에도 불가하니이다.”

반씨가 꾸짖어 왈,

“너는 조그만 아이라. 어찌 방자히 어른을 시비하리오.”

위진이 크게 노하여 왈,

“이는 분명 너의 말이 아니라. 누구의 부탁을 듣고, 내 말이 여차여차하거든 너는 대답을 이리이리하라 한 것이 아니더냐. 너에게 기결한 사람은 극한 요물이라. 너 혼자서 말이라면 어찌 이리하리오. 내 비록 유약하나 네 말대로 시행할까 보나.”

하니, 모든 친척이 칭찬 불이하더라.

흥이 숙부의 불측한 심사를 듣고 큰 소리로 왈,

“㉡ 아가 소질이 사된 바를 어른에게 배운 바라 하시니, 말 씀이 옳사오면 따를 것이요, 비록 어른의 말이라도 부당하오면 따를 이유 없으니, 할머니의 상사를 당하였어도 부친이 삼천 리 밖에 계셔 상변(喪變)을 알지 못하시고 발상*도 못하오니, 비록 아니 계시나 장자 장손이 발상함은 예문(禮文)에 당당하옵거늘, 그는 의논치 아니하시니 누구와 더불어 대상* 하시나니이까. 금일 문중이 다 모였으니 결정하소서.”

위진 형제 왈,

“㉠형님이 비록 귀양살이를 하고 있으나 죽지 아니하였고, 미처 부고를 알리지 못하였으나, 조그만 아이가 알 바가 아니라. 예문에 이상이라는 말이 없으니 불가하니라.”

모든 사람이 왈,

“흥이 비록 어리나 소견에 이치가 있어 우리도 생각지 못한 일이거늘, 이 말이 가장 옳은지라. 바빠 대상하라.”

위진 형제가 큰 소리로 노하여 왈,

“어찌 어린아이의 말로 인하여 상중 대사를 그릇되게 하리오. 우리는 예문대로 하리니 어찌 장자를 두고 대상하리오.”

하고 일시에 피신하니, 문중이 상의하여 왈,

“상인(喪人)이 이제 우리를 피하니 더 있어 무엇하리오.”

하고 상복 입을 것을 보지 아니하고 모두 귀가하니, 흥이 망극하여 실성통곡 왈,

“우리 집의 가세는 어찌 남과 다르고. ㉡숙부가 불의를 행하여 문중이 따로따로 흩어지니 무슨 아름다운 일이 있으리오.” 말을 마치기 전에 채씨가 이르러 부인의 영위*에 곡하고 반썬을 보며 왈,

“나는 시택에 득죄하여 본가에 있기로 존고*께 통신을 못하니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리오. 그대는 지극한 정성을 가지고 어찌 존고의 뒤를 따르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부지하였느냐. 그 사이 우애가 지극하여 저 나를 기다렸다 죽으려 하였느냐. 지금도 참소와 아첨을 존고께 고하리었고.”

하고 욕설이 무수하니, 반썬이 분함을 겨우 참아 다만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채씨가 흥을 꾸짖어 왈,

“너는 황구소아*라. 무슨 일을 아는 척하고 우리를 원수로 지목하니, 네 그러면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

흥이 대답치 아니할 뿐이더라. 장례일을 당하니, 부인을 선산에 안장하고 집안을 정리할새 **집안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니**, 두 사람이 주야로 남편을 미혹하게 하여 반썬 모자를 백 가지로 모해하니, 반썬이 흥을 불러 왈,

“㉢우리 모자가 이제 독수(毒手)를 면치 못할지니 미리 화를 피할 곳을 정하라.”

하고, 인하여 양 부인 묘소에 초막(草幕)을 짓고 삼년상을 마친 후에, 다시 거취를 정하고자 하여, 이에 약간의 비복을 거느리고 조상을 모신 사당에 올라 통곡하고 **산중으로 들어가니**, 보는 사람들이 저마다 비참해 하지 않을 이 없더라.

- 작자 미상, 「반썬전」 -

- *주장: 어떤 일을 책임지고 맡음, 또는 그런 사람.
- *소결: 조카가 아저씨를 상대하여 자기를 낮추어 이르는 말.
- *발상: 상례에서 초상난 것을 알림.
- *대상: 장자가 없을 시 장손이 대신 상례를 주관함.
- *영위: 상가에서 모시는 혼백이나 가주(假主)의 신위.
- *존고: 시어머니를 높여 이르는 말.
- *황구소아: 철없이 미숙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43.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흥은 문중 사람들의 의견을 근거로 채씨에게 부고를 알리는 것에 반대했다.
- ② 채씨는 자신을 본가로 보낸 양 부인에게 지속적으로 사죄의 뜻을 전했다.
- ③ 반썬은 남편에게 부고를 전하지 않으려는 위진을 질책했다.
- ④ 문중 사람들은 위진에게 모친의 묘소를 정하도록 위임했다.
- ⑤ 위진은 위윤의 뜻에 따라 자신이 대상할 것을 주장했다.

44.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과거의 사건에 대한 자신의 판단을 제시하며 자신이 하려는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다른 사람의 권위에 기대며 자신의 생각이 옳음을 강조하고 있다.
- ③ ㉢: 현재 상황을 설명하며 상대방의 제안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 상대방의 행동을 평가하며 현재 상황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앞으로의 일을 예측하며 행동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조선 후기 사대부 집안은 가문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장자 중심의 수직적 위계질서를 중시하였고, 가문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에는 문중의 공론과 예문을 따르도록 했다. 특히 장자의 부재 시 장손이 아버지를 대신하는 대상을 행할 수 있다는 상례에는 이러한 위계질서가 잘 나타난다. 이 작품에는 장자의 부재 시에 상례가 발생한 상황에서 기존의 가권(家權)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가권을 차지하려는 욕망으로 이에 도전하는 세력 간의 갈등이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

- ① 위진이 채씨에게 ‘부고를 전하되 상복 입기 전에 오라’고 한 것에서, 위진이 모친의 유언에 담긴 수직적 위계질서를 따라 상례를 치르려 했음을 알 수 있군.
- ② 위진이 ‘상중에 시비를 돌’ 운다며 ‘형님이 아니 계시어 내가 주장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위진이 가권을 차지하는 데 반썬을 방해가 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 ③ 흥이 예문을 근거로 ‘장자 장손이 발상함’을 주장하고 이에 대해 문중이 결정하도록 한 것에서, 흥이 예문과 문중의 공론을 통해 기존의 가권을 지키려고 했음을 알 수 있군.
- ④ 채씨가 ‘우리 일문을 다 삼킬 줄 아느냐’고 흥을 꾸짖는 것에서, 가권을 차지하려는 채씨의 욕망이 흥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군.
- ⑤ ‘집안 형세가 모두 채씨와 맹씨에게 돌아가’고, 반썬 모자가 ‘산중으로 들어’간 것에서, 가권을 둘러싼 갈등을 통해 가권이 위진 쪽으로 기울게 되었음을 알 수 있군.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